

센세이셔널리즘의 과정과 기능 및 현대적 상황

안 광 식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미디어에서의 선정주의는 또한 수용자들에게 값싼 낭만성을 조성해 주고도 있으며, 흥미본위의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호기심과 화제거리를 조성해 주고 있다. 그래서 미디어의 센세이셔널리즘은 인간의 가치나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규범을 설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흥미, 오락, 순간적 도피와 시간낭비, 정치에 대한 외면과 사회적 문제의식의 결여, 도덕과 윤리의 퇴폐, 본능적 자극, 특히 섹스와 관련된 공공성 보다 상업성의 발휘 등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선정주의는 대중의 사회심리를 이용하여 상업성을 발휘하는데 주효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선정주의의 궁극적 목표는 영리 추구이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같이 보인다.

I. 서언

현대 사회에서 매스미디어는 센세이셔널리즘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다. 인간의 속성이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성향이 크기때문에 매스 미디어는 어떤 내용을 수용자들에게 전달함에 있어 감성에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용자의 지성이 아닌 감성에 호소하고 영합하는 미디어의 수법을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현상에 있어서 센세이셔널리즘(선정주의) 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속성이나 본능의 일면과도 합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 인간사회에서 매스 미디어의 기능이 센세이셔널리즘에 의해서 수행된다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 되어 버렸다. 이 글에서는 선정주의의 수법에 대한 시비를 벌이려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센세이셔널리즘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저널리즘상의 배경은 무엇이고, 신문 · 방송에 의한 매체별 선정주의의 특성과 수법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가시간의 반 이상을 매스 미디어와 더불어 보내고 있으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미디어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도 하며, 또한 우리의 가치관과 규범이 미디어에 의해서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견지에서 볼 때, 대중매체를 통하여 연일 한없이 유통되고 있는 센세이셔널리즘의 영향권 하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조금도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이다.

이제는 사회구조나 체제상으로 싫거나 좋거나 간에 매스미디어의 선정주의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 되어버렸으며,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따르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는 그것이 일종의 숙명과도 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센세이셔널리즘이 왜 생겨났으며, 그 사회적 기능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하면 그것이 비도덕적·비윤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현상에서 마치도 최악시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매스미디어에 의한 센세이셔널리즘은 현존하는 사회구조와 경제체제에 있어 일대이변이 없는 한 붕괴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기존의 사회체제하에서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수적인 것」으로 사회에서 따르게 마련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매스커뮤니케이션 또는 저널리즘의 과정에 있어서 선정주의가 최상의 수법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이 필수 불가결한 것도 아니고, 사회발전을 위한 방편도 결코 될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선정주의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줄 아는 사회적 지성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어떻든 간에 현대 저널리즘의 특성중의 하나가 센세이셔널리즘인 이상 그것을 전적으로 도외시킬 수도 없게 되었으며, 그렇다고 영합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현대 저널리즘의 고민과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다. 그와 같은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센세이셔널리즘의 본질과 정체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취지 하에서 본론을 풀어보려고 한다.

II. 센세이셔널리즘의 과정과 기능

1. 센세이셔널리즘의 등장

우리 나라의 저널리즘 분야에서 선정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하여 자리를 굳히기 시작한 것은 1968년 하반기에 주간지(주간지포함)들이 쏟아져 나와서 선정주의 경쟁을 벌이기 시작한 이후부터 라고 볼 수 있다. 그 당시 다른 미디어의 상황을 보면 일간 신문들은 지면 카르텔제에 묶여서 하루에 6페이지 밖에 발행을 하지 못하는데다 정부의 언론 통제때문에 별로 신통한 지면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월간 잡지들은 대중과 거리가 먼 내용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의 기호물이 되지 못하였고 라디오는 가장 많이 보급된 매체였음에도 몇 가지 짜여진 편성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점 때문에 대중과 밀접하지 못했으며, 텔레비전의 경우는 보급이 전체가구의 1백분의 1에도 미달된 상태였으므로 일반화되지 못했었다.

그와 같은 미디어의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근대화의 초기단계를 벗어나서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대중소비시대로의 전환단계에 처해서 매스미디어의 기능과 역할도 정통성을 이탈하여 오락적인 것을 추구하는 방향과 전환의 추세에 있었다.

이와 같은 시정에서 등장한 것이 주간지들이었으며, 산업화되는 한국 사회에서의 대중의 긴장과 피로를 해소해주기 위한 구미의 내용물을 갖고 제공되는 등 당시로서는 색다른 형태의 저널리즘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주간지들은 독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했으며, 주간지들의 그 기능과 역할은 선정주의에 의거하여 실행되었던 것이 특색이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사회에서도 저널리즘에 의한 센세이셔널리즘이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텔레비전의 수상기 보급이 증가하면서 방송의 구조와 제도가 그때는 상업주의 위주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락프로그램을 통해 부분적으로 센세이셔널리즘이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한편 1970년대 후반기부터 1980년대에 이르러 일간 신문들이 또한 산발적으로 살인강도 등의 범죄 및 섹스와 치정관계 등의 기사를 취급함에 있어 선정성을 맹렬히 발휘해 왔다.

1968년 주간지들이 본격적인 대중매체로서 발행되기 이전에도 한국의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센세이셔널리즘이 전무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선정주의의 본격적인 사회적 등장을 1968년으로 잡는 것이 아마도 무리한 판단의 시점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가 시대적으로 근대화의 초기단계를 넘어서고 서울 인구의 집중화 현상이 가중되면서 수도권에 매우 복잡해지기 시작했으며, 사회는 공업화와 더불어 배금풍조가 확산되어 도덕·윤리적인 퇴폐화도 초래되고, 종래의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신문·잡지의 재래적 전통성과 가치체계가 전도되어 오락성이 추구하고 센세이셔널리즘이 만연될 수 있는 사회적 풍토와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센세이셔널리즘의 유래

센세이셔널리즘은 미국에서부터 생겼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유래는 1833년에 뉴욕시에서 발행된 최초의 페니 페이퍼(Penny Paper) 였던 「뉴욕 선(New York Sun)」 지로부터 비롯된다.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신문의 기능은 주로 정치적 뉴스를 전달하고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었다. 이유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적 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없이는 신문발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때까지만 해도 광고제도가 발발하지 못했으며, 문맹률은 높았고, 따라서 신문 보급률이 매우 낮은 상태였다. 그래서 신문은 대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치에 관심이 있는 특수한 소수 계층만을 위한 것이었다. 그때까지의 신문을 통칭하여 정당신문(Party Press) 이라고 불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45년 해방이후 1948년 건국 시 까지 대부분의 신문들이 정당의 지원 또는 배경아래 발행되었으며, 그 이후로 1961년의 5·16 혁명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색채가 뚜렷한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던 것이 특색이었다. 같은 연대는 물론 아니지만 우리나라 신문의 경우도 해방 후 근대화과정의 이전까지는 신문이 정치 위주였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미국신문의 발전과정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다.

다시 미국의 과정을 살펴보면, 19세기 초엽에 의무교육이 실시된 후로 문맹률이 낮아지고, 따라서 신문을 읽을 수 있는 계층이 증가하면서 페니 페이퍼가 등장했으며, 신문의 보급률이 또한 많아지고, 가두판매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등 1830년대에 들어와서 신문이 비로소 대중화되었던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최초의 페니 페이퍼로서의 성공은 벤자민 데이(Benjamin Day)가 1833년에 창간한 「뉴욕 · 선」 지였다. 이 신문은 정치위주의 기사에서 탈피하여 개인의 가십, 동물에 관한 것, 일화, 경찰 및 법정과 관련된 기사 등 소위 인간을 소재로 한 흥미본위 (Human Interest)의 기사를 개발하여 새로운 형태의 저널리즘을 발굴했다. 그와 같은 종류의 내용들은 지금의 매스미디어에서 매일같이 취급되는 기사종류로서 조금도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매우 생소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과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내용물이 되었다.

그래서 센세이셔널리즘의 유래는 「휴먼 인터레스트」를 위주로 하는 저널리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아야 한다.

「휴먼 인터레스트」란 말은 「뉴욕 · 선」의 사설에서 처음 나왔는데 그것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집약된다.

첫째는 그것이 반 문맹자인 대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독자를 정치에서 해방시킨다는 것.

둘째는 그것이 인간의 공통된 행운이나 불운을 함께 서로 나눈다는 것.

셋째는 그것이 평민과의 관계를 맺는 다는 것. 즉 국왕, 대통령, 장군, 귀족, 재벌, 명사들이 아닌 서민에 관한 기사를 취급한다는 것.

넷째는 신문에서 독자의 호기심과 흥미를 야기시켜 즐겁게 해준다는 것. 다시 말하면 휴먼 인터레스트에 관한 기사들에 의해서 신문이 탈정치적 현상을 초래하고, 대중의 공동운명체 의식을 강조하며, 민중화 현상을 주장하고 신문의 기능을 오락화 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문이 일반대중의 생활과 문제를 기사의 소재로 삼기 시작했으며 경찰과 법정, 동물에 관한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페니 페이퍼였던 「뉴욕 이브닝 트랜스크립트(1834년 발행)」지는 스포츠에 관한 최초의 기사로 경마를 취급했으며, 다음 해에 창간된 「뉴욕 헤럴드」지는 최초로 인터뷰 기사를 창안해 내기도 했다.

그 밖의 흥미위주의 기사로 동물에 관한 것 중에서도 뱀, 악어, 야수 등이 소재가 되고, 사람에 관한 기사 중에 서는 기형아, 거인, 네 쌍둥이 등 괴상하고 엽기적인 내용들을 다루었으며, 심지어 사설에서도 주정, 도박, 결투, 운전과속, 기타 인기 있는 도덕적 문제를 주제로 채택했다. 이와 같은 저널리즘의 새로운 현상은 「휴먼 인터레스트」라는 대전제 하에 신문을 제작하는 결과의 소산이었다며, 그것이 바로 센세이셔널리즘의 전주곡이면서 본론이 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페니 페이퍼들은 신문의 사회적 기능을 전환시키는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저널리즘 자체의 분야에서도 변화를 일으켰다. 신문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문장을 짧게 쓰고 대중에게 화제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정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발사, 사무원, 상인들인 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신문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19세기 전반의 신문은 특수매체나 정치매체가 아닌 대중매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현대적 신문의 기반을 구축했으며, 일종의 새로운 신문의 전통과 수법을 세워 놓았다.

그렇다고 19세기 중엽까지 모든 신문들이 「휴먼 인터레스트」만을 위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개중에는 사실보도를 착실히 다듬어 나간 신문(뉴욕 · 타임즈)도 있었으며, 종교와

도덕성을 강조하고 사회개혁을 주장한 신문(뉴욕 트리뷴)도 있었다. 그러나 내용의 주류는 「휴먼 인터레스트」였다.

그리고 19세기 후반기에 들어와서 휴먼 인터레스트에 관한 기사가 더욱더 과장, 확대되어 선정주의의 꽃을 피우면서 본격화되고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조세프 · 풀리처(Joseph Pulitzer)와 윌러엄 · 랜돌프 · 허스트(William Randolph Hearst)가 선정주의의 주도권을 위한 경쟁을 벌임으로써 센세이셔널리즘은 가열화 되었다.

풀리처는 1883년에 「뉴욕 월드」지를 매입하여 5월 11일에 발행된 창간호 신문부터 지면을 선정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백만 달러의 피해를 본 뉴저지 주에서의 폭풍, 피츠버그에서의 교수형, 하이 터에서의 폭동, 한 여인의 슬픈 이야기 등 일면을 선정적인 피쳐기사거리를 갖고 채웠다. 당시 그와 같은 저널리즘의 수법은 생소한 일이었으며 다음 날 뉴욕 시에서는 그 신문이 일대 화제거리가 되었다.

또한 월드 지의 일요일판(선데이 월드)에서는 최초의 색채연재만화로 「옐로우 · 키드(yellow kid)」라는 빈민가에 사는 어린이의 모험을 소재로 한 만화를 게재함으로써 독자들 인기를 끌었다. 선정주의를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부르게 된 동기가 바로 이 만화 때문이다.

풀리처의 선정주의 수법은 물론 범죄, 폭력, 섹스를 전시하는 피쳐기사 위주였지만, 그와 같은 선정주의 수법으로 사회악을 고발하는데 신문이 기여한 것이 또한 특색이었다. 뉴욕 · 월드 지는 특히 뉴욕 시에서 이민 온 여성들을 채용하여 혹사하는 봉재구역에서의 부정 및 교육의 기회에 대한 불평등, 세금부정, 부패 등을 센세이셔널리즘을 통해 폭로하고 규탄했다. 그와 같은 종류의 기사를 추문폭로(muckraking) 기사라고 한다. 그래서 센세이셔널리즘은 사회의 부정부피, 비리, 모순 등을 파헤쳐 폭로하는 것이 신문의 사명과 책임이라는 전통을 또한 세워놓기도 했다. 풀리처의 뉴욕 · 월드는 휴먼 인터레스트의 수법을 계승하여 센세이셔널리즘을 창출해낸 최초의 신문으로 인식되지만, 정치 · 사회적으로 자유주의와 진보주의의 노선을 따랐다는 것이 또한 특색이었다. 그렇다고 선정주의가 곧 자유주의나 진보주의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뉴욕 · 월드가 선정주의수법과 더불어 성공 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의 연유는 1880년대에 뉴욕시의 인구가 미국 각 지역으로부터 모여들고 유럽으로부터 이민이 많아 50%이상 증가했으며, 이민들의 입장과 요망 및 문제를 이 신문이 대변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 신문은 또한 기자를 특파원으로 세계일주 시키고, 자유의 여신상 건립을 위해 독자로부터 모금운동을 벌이는 등 신문의 선정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독자들로부터 선풍적 인기를 끌었으며, 1898년에는 발행부수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가장 많은 100만부를 돌파했다. 그래서 신문은 경영상으로도 센세이셔널리즘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한편 플리처의 신문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허스트는 1896년에 「뉴욕·저널」을 창간하여 한층 더 가열된 센세이셔널리즘을 발휘했다. 「선데이·월드」의 편집자 모릴·고다르(Morrill Goddar)와 만화가 리처드·아우트콜트(Richard Outcault)를 「선데이·저널」로 전근시켜 연재만화 「엘로우 키드」를 게재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섹스, 범죄, 폭력, 그 밖의 스캔들에 관한 것, 의사와학 기사 등의 내용을 위주로 하여 신문을 제작했다.

「뉴욕·저널」은 제목을 더욱 크게 다루고, 사진을 또한 크게 그리고 선정적으로 취급했다. 전단제목이 세상에 출현한 것도 이 신문에 의해서 처음 생긴 일이었다.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했을 때 「뉴욕·저널」이 전단 제목을 처음 사용했던 것이다.

한편 선정주의 저널리즘을 선전하고 과시하기 위하여 이 신문사는 미 대륙 횡단 자전거 릴레이를 개최했다. 1896년 8월 25일 노란 옷을 입은 자전거 주자가 전달배낭(Pouch)를 갖고 허스트 소유의 「샌프란시스코·이그재미너(San Francisco Examiner)」신문사를 출발하여 릴레이식으로 대륙을 횡단했다. 파우치 속에는 샌프란시스코 우레국장의 친서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9월 7일에 최후의 주자가 13일 29분 4초 1/5의 시일 만에 뉴욕의 저널 신문사에 도착했을 때 신문사 현관에 허스트를 비롯하여 편집자, 기자, 관중들이 황색저널리즘의 거사와 위력을 자찬하면서 박수를 보냈다.

허스트가 그때 바로 「엘로우·저널리즘」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황색저널리즘이란 말의 어원은 연재만화 「엘로우·키드」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말의 발설자는 바로 선정주의를 절정에 올려놓은 허스트였다.

한편 「뉴욕·저널」신문사는 자전거릴레이의 성공과 황색저널리즘의 위력을 자축하기 위하여 뉴욕의 센트럴 공원(Central Park)에서 카니발을 열었다. 자전거 릴레이에 참여했던 주자들이 가면을 쓰고 꽃과 깃대를 달고 악대에 맞추어 공원으로 들어왔을 때 5만의 관중들이 갈채의 박수를 보내고 불꽃놀이를 즐겼다는 것이다. 그날 밤이야말로 센세이셔널리즘의 절정을 이룬 밤이었다.

허스트는 황색 저널리즘을 통하여 주로 화려하고 재미있는 재즈식의 기사라는 새로운 수법을 개발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신문은 보도 및 교육적이라야 한다는 이론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어 왔으나 허스트는 그 관념을 거절한 발행인이었다. 허스트가 독자들에게 추구한 것은 지성이 아니라 감성이었으며 그에게 신문은 시종일관 오락에 의한 흥미분위 일색이라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센세이셔널리즘은 플리처에 의해서 개발되고, 허스트에 의해서 꽃을 피우고 정착되었다. 이렇게 해서 센세이셔널리즘은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확산되어 저널리즘의 한 방법으로서 총애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60년대이후부터 센세이셔널리즘은 신문·잡지·방송과 밀착된 상태에서 그 속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3. 센세이셔널리즘의 기능

월터·리프만은 매스 미디어를 수용하는 대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자기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생활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에 속하는 계층은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 그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 물질문명의 사회에서 긴장과 피로, 불만과 권태가 쌓이게 마련인 대중들에게 매스 미디어는 사실상 생활상으로 위안의 매체가 되고 있다. 그와 같은 미디어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일종의 수단과 방편이 되는 핵심적 요소가 바로 「센세이셔널리즘」이며, 그와 같은 선정주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보도적 기능이나 교양·교육적 또는 계도적 기능보다도 오락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더욱 주효하고 있다. 그렇다고 보도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센세이셔널리즘이 전혀 작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센세이셔널리즘은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함에 있어 수용자의 감성에 호소하고 그들을 자극시키면서, 오락성을 추구하는 기능이 강하며, 선정주의의 발휘는 긴장완화 또는 불만해소의 결과를 초래하면서, 때로는 「현실도피의 작용을 시키고도 있다. 그래서 과도한 선정주의는 현실의 문제를 외면 시키고 기피하게 만드는 도피작용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방송에서 오락적 프로그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텔레비전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 및 영화나 스포츠 프로그램은 현대인의 긴장과 피로를 덜어주면서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논의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박탈하고 대중을 현실문제에서 외면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디어에서의 선정주의는 또한 수용자들에게 값싼 낭만성을 조성해 주고도 있으며, 흥미본위의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호기심과 화제거리를 조성해 주고 있다.

그래서 미디어의 센세이셔널리즘은 인간의 가치나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규범을 설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흥미, 오락, 순간적 도피와 시간낭비, 정치에 대한 외면과 사회적 문제의식의 결여, 도덕과 윤리의 퇴폐, 본능적 자극, 특히 섹스와 관련된 공공성보다 상업성의발휘 등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선정주의는 대중의 사회심리를 이용하여 상업성을 발휘하는데 주효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선정주의의 궁극적 목표는 영리 추구 이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선정적 커뮤니케이션을 옹호하는 측의 변명은 미디어가 대중의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락적인 것이지, 교육적이거나 가치 추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미디어는 대중의 속성과 바람에 영합하고 그들의 소원을 성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가로 미디어는 이윤을 취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역리적 진실을 보도하고 논평함에 있어서도 흥미본위의 오락적이며 자극적 또는 선정적 수법으로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고 최상의 방법인지는 확실히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따르는 나라에서 미디어의 상업성은 물론 부인할 수는 없으나,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과 책임 및 사명은 상업성보다 공익성에 더욱 치중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구조나 체제가 영리적인 것은 보다 더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론만 주장할 수도 물론 없으며 한편으로 선정주의의 기능적 측면을 불가능한 것으로 무조건 용인할 수도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4. 선정주의와 섹스

센세이셔널리즘에서 따르게 마련인 것은 인간의 본능과 관련된 「섹스」에 관한 소재이다. 저널리즘에서 뿐만 아니라 문학, 미술, 무용 등 예술작품에서도 섹스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작품(전개)과정에서 때로는 표현방법이 악화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예술 작품들이라면 결과에 있어서는 섹스와 관련하여 「미의 세계」로 승화시키고 있다. 문제는 섹스의 소재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진지하게 승화시키느냐, 흥미롭게 선정화 하느냐, 또는 저속하게 외설화하느냐에 따라 저널리즘 또는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섹스와 관련된 것이라면 반드시 치정관계, 여성의 나체, 성적 행위와 관련된 것 뿐만이 아니라 동성연애, 나체주의, 청소년의 이성문제, 어린이들에 대한 성교육, 젊은이들의 결혼관, 남녀공존, 그리고 좀더 넓은 개념으로는 인구문제, 여성의 직위향상에 이르기까지 많은 소재와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

신문·방송·잡지에서 성과 관련된 어떤 사실을 도덕, 윤리적 측면에서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사실화하고, 또는 사회적 견지에서 올바르게 분석하고 논평하는 것은 고급 저널리즘에 속하며, 사실을 재미있게 흥미화 내지 오락화하고 때로는 과장하고 감성에 호소할 때 그와 같은 수법을 선정적 저널리즘에 해당되며, 또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색정화 내지 외설화하여 수용자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흥분 시키는 섹스어필의 작용을 하는 것은 센세이셔널리즘과는 또 다른 「에로티시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섹스문제를 취급할 때 있어 같은 소재를 갖고도 저널리즘의 접근방법의 여하에 따라서 저널리즘의 유형이 판별되게 마련이지만 기사의 필법, 편집의 방식, 사진촬영의 각도 등 취급과정과 결과에 따라서 센세이셔널리즘과 에로티시즘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섹스와 관련된 소재를 취급함에 있어 선정주의와 색정주의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비난의 화살은 선정주의를 발휘하는 저널리즘보다 색정주의에 입각한 영리위주의 경영인에게만 돌릴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종류의 저널리즘을 사실상 즐겨 수용하는 대중의 선정에도 돌려야 할 것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대중들은 물론이려니와 지성인들까지도 색정적 내용물을 좋아한다는 것이며, 특히 중년의 미혼여성, 불행한 주부, 여사무원, 말괄량이 아가씨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섹스와 관련된 기사를 즐겨 읽는다고 미국의 한 학자는 조사를 통해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색정적 섹스 기사가 그들의 잠재의식과 부합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한 사회심리학자는 선정적 내지는 색정적 기사를 접촉하는 이유를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고 인생에 대한 권태감과 욕구불만에 찬 계층이 잠시나마 현실도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환상에서나마 자신을 공주나 영웅으로 삼으며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섹스를 소재로 한 미디어의 센세이셔널리즘과 에로티시즘은 인간의 본능과 잠재의식 내지는 현대사회의 구조적·제도적 취약점을 이용하면서 상업행위를 하는 수단의 기능이외에 목적의식이나 의미를 찾을 것이 없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대중의 사회심리와 자본주의의 사회경제 체제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미디어의 경영인들이나, 그들에게 추종하지 않을 수 없는 미디어 종사자들이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을 즐겨서 받아들이는 수용자들이 모두 공동으로 그 저속성과 퇴폐성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저널리즘의 현상은 현대사회의 모순된 구조와 제도에도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마도 선정주의와 색정주의의 한계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저널리즘에서 선정주의까지는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치더라도, 색정주의의 전파와 확산은 결코 한 사회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주간지를 통하여 색정주의의 유감 없는 발휘는 언론계나 정부 및 국민들이 모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여겨진다.

III. 센세이셔널리즘의 현대적 상황

1. 신문에서의 센세이셔널리즘

신문에서의 센세이셔널리즘을 살펴봄에 있어 먼저 세계적인 일반적 경향을 알아본 다음에 우리의 경우를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세상에서 신문의 유형에는 대체적으로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고급지, 대중지, 선정지로 구분된다. 선정지의 발행 형태는 통상적으로 타블로이드판이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물론 아니다. 선정지는 거의 모두가 세상의 큰 도시에서 발행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선정지는 뉴욕의 「데일리 · 뉴스」, 런던의 「데일리 · 미러」, 빠리의 「프랑스 · 쇼르」, 함부르그, 뮌헨, 프랑크푸르트에서 동시에 발행되는 「빌드 · 짜이퉁」 지들이다. 그런데 그와 같이 유명한 도시에서의 재미있는 현상은 서로 다른 유형의 신문들이 공존하면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는 「뉴욕 · 타임즈」(고급지)와 「데일리 · 뉴스」(선정지)와 「뉴욕 · 포스트」(대중지)들이, 빠리에서는 「르 · 몽드」(고급)와 「프랑스 · 쇼르」(선정)와 「르 · 피가로」(대중)지들이, 런던에서는 「더 · 타임즈」와 「가디언」(고급), 「데일리 · 미러」와 「데일리 · 메일」(선정), 그리고 「데일리 · 텔레그래프」(대중) 지들이 서로 제 나름대로의 특색을 갖고 발행되고 있다.

세상의 선정지들은 나라마다 또한 특색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영국의 선정지들은 세상에서 가장 색정지적 경향을 의고 있으며, 미국의 것은 제공되는 내용의 메뉴가 다양하며, 서독의 것은 영국만큼 섹스물을 다루지는 않지만 사진위주의 지면을 만들고 있으며, 프랑스의 선정지는 배대판을 갖고 비대한 제목으로 제공되는 등 나라마다의 선정적 특색을 갖고 있다. 선정지들은 발행부수가 다른 유형의 신문보다 월등하게 많으며, 서독의 「빌드 · 짜이통」지의 경우는 약 480 만부로 소련의 공산주의 신문들을 제외하고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발행부수를 갖고 있다.

선정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미국의 「데일리 · 뉴스」지의 경우 기사체가 재미있고 화려하며,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사실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쓰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고급지들의 요즘의 현상이 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사건기사(스트레이트)에서도 설명과 분석을 가하여 심층보도의 방식을 택하는 것에 비해서, 선정주의 신문에서는 19세기 말엽의 센세이셔널리즘의 탄생시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을 피처의 앵글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리고 선정주의 신문들은 뉴스 기사 위주의 신문도 아니며, 해설이나 논평기사 위주의 신문이 아니라, 「피처기사 중심의 신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다.

그렇다고 국내, 국제적으로 중대한 뉴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선정지에는 물론 스트레이트 기사가 포함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피처기사가 비교적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사마다의 분량은 대체적으로 짧으며 단편적인 경향을 피고 있다.

그리고 피처위주의 기사와 더불어 만화가 여러 개 제공되며, 체스(장기), 크로스워드 퍼즐(날말 맞추기) 등 오락적인 것이 반드시 게재된다. 해설 · 심층보도는 별로 없으며, 사실도 비교적 짧게 그리고 간결하게 제공된다. 선정지에서는 또한 컬럼을 여러 개 제공하는데 여성, 가십, 신디케이트 컬럼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문화면에서는 예술적인 것보다는 연예 · 오락적인 것을 택하고, 일반적으로 정치 · 경제적인 것보다는 스포츠면에 역점을 두고있다.

편집의 경향에 있어서는 사진을 많이 그리고 크게 다루고 있으며, 제목들이 일반적으로 비대한 편이다.

이상이 외국에서, 특히 미국의 데일리 · 뉴스지의 지면 제작 경향이며, 나라에 따라 또는 같은 나라에서도 신문에 따라 각양각색의 선정적 방식과 특징을 갖고 제작되기 때문에 세계의 선정지들의 경향을 일반화하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어떻든 간에 외국의 선정지들은 우리 신문보다 재미있고, 읽을 거리가 많으며, 기사는 박력이 있고, 편집은 선명하며, 나름대로의 독특한 색채와 방향을 취하는 특색이 있는 신문들로 보여진다. 선정주의를 추종함에 있어서도 뉴스의 선정성이나, 제목과 사진의 선정성이나, 인물에 대한

선정성이냐의 서로 다른 특징을 두면서 신문을 제작하고 있는 것이 외국의 선정지들의 경향이다. 외국의 선정지들은 잡지적 내용이 아니고 뉴스가 담긴 신문을 만들고 있으며 우리의 주간지들과는 또한 판이한 신문을 만들고 있다.

2. 우리나라 신문의 선정적 경향

우리나라에 선정지가 존재하느냐고 묻는다면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신문들은 사실상 모두가 고급지도 아니고 선정지도 아닌 대중지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문을 일괄해서 「무성격이 특징」이라고도 평한다. 그러나 큰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신문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선정지로 변신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와 같은 경우가 과거 2~3년 동안에 발생했던 모든 큰 사건의 경우에 해당된다. 그 중 대표적인 사건들이 어린이 납치, 여대생 피살, 윤보살, 장영자, 조세형 사건들 그리고 중공기 피납, 남편 독살 등 신문의 사회면과 관련된 사건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문들이 전체적인 면에서는 선정지라고 할 수 없으나 부분적으로 사회면의 경우만은 큰 사건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대부분이 선정적 내용의 기사들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신문에서 사회면만을 놓고 볼 때는 선정지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사회면의 경우 사건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중에서도 살인, 강도 등의 범죄 및 폭행, 사고, 치정관계 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연히 선정적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흥미롭거나 선정적이거나 폭발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사회면의 기사와 편집의 숨씨는 과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사회면의 기사가 다른 면으로 확대되어 과잉 취급의 현상을 빚게 된다.

그럴 때 일수록 사회면과 그 밖의 지면들의 편집방식은 선정화된다. 제목과 사진이 차지하는 지면의 비율이, 기사가 차지하는 지면의 비율보다 많아진다. 그렇다고 반드시 큰 사건이 생겨야만 지면을 선정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회면에서의 선정적 수법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 같다.

어떤 종류의 내용을 지면에 포함시키는가, 또는 지면의 편집배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선정성의 여부와 판별될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예컨대 어떤 날 한 신문의 사회면을 보니까 5단 광고이외의 기사제공 지면의 부분에서 만화, 일기예보, 돌출광고를 제외하고 게재된

기사가 모두 피살, 독살, 그 밖의 범죄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그런 종류의 기사들은 모두가 소위 선정적 기사의 메뉴들이다. 그리고 어떤 신문에서는 차치기에 관한 기사를 취급함에 있어 기사의 길이는 오백자 원고지 2장 반쯤 밖에 안 되는데 기사를 4단에 걸쳐 배열하고 제목은 6단으로 취급되었으며, 그와 같은 짧은 기사에다 제목의 종류는 백기의 컷 제목, 본제, 견제 등 세 종류가 차지하고 있었다.

기사의 뉴스가치보다도 오히려 더 큰 비중의 편집방식을 취하는 「기사와 제목의 불균형적」 편집도 센세이셔널리즘을 구가하는 방식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선정적인 흥미로운 사건이 생기면 사건의 주인공들과 주변인물에 대한 사생활을 캐내고 따라서 개인의 권리침해,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법적 또는 윤리적 문제의 목록이 의례히 나타나게 마련인 것이 오늘날 우리 나라 신문들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선정적 모든 방식이 때로는 이 사회의 도덕적·윤리적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 뿐 아니라 또한 사회의 가치기준을 흐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와 같은 예는 조세형 사건과 관련하여 신문이 도적의 행적을 마치도 「의적시」 또는 「미화」 했을 때였다. 또한 신문의 선정적 보도방식이 때로는 허위보도를 심화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다. 그와 같은 예는 「바둑이 총건」 사건 때 더욱 그랬던 것 같다.

일반적으로 신문에서 제공되는 기사가 「사건의 실제적 사실」과 얼마나 정확하게 동일할 수 있는 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신문 또는 방송에서 제공되는 기사는 소위 「미디어의 사실」로서 제공되는 것인데, 그 「미디어에 보도된 사실」이 뉴스원에서 제공되는 사실과 때로는 차이가 있으며, 「뉴스원의 사실」은 또한 「사건의 실제적 사실」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현실이 뉴스원을 거쳐 미디어에서 제공될 때는 두 번이나 왜곡 또는 가미된 기사로서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그 위에 선정성에 의해서 기사는 또 한번 염색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건의 진실이 얼마나 본연의 사실대로 보도될 수 있느냐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선정적 보도 방식은 허위보도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그 동안 신문에서는 선정적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때로는 진실을 찾아내지 못하고 허위적 사실을 전달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총건 바둑이, 윤보살, 여대생 피살, 한국산 호랑이 사건 등을 보도함에 있어 미디어의 잘못이거나 또는 취재원의 잘못이었던지 간에 신문은 센세이셔널리즘에 도취하여 허위적 사실을 많이도 보도하고 때로는 조작도 한 것 같이 보였다.

선정주의에 의한 신문에서의 부정확성 때문에 이제는 신문의 「신뢰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신뢰성의 상실이 반드시 센세이셔널리즘 때문만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련하여 선정주의의 몫이 큰 것도 같다.

신문은 또한 큰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과정 및 수사결과, 그리고 관련자들의 신상에 관한 경찰의 발표를 거의 빠짐없이 자세히 보도하고, 그 위에 추측과 또 다른 가미 또는 조작된 사실을 때로는 게재하기도 한다.

그와 같은 현상은 틀림없이 선정주의의 제사를 드리는 저널리즘의 형상이 아닐 수 없다. 독자에게 필요하고 독자들이 알아야 할 기사는 자세하지 못하면서 독자에게 별로 유익하지도 않고 알릴 필요도 없는 내용을 열심히 여러 면에 걸쳐 확대시켜 가면서 취급하고,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기사가 때로는 마치도 소설이나 또는 야사와 같은 문장의 스타일로 작성되는 식의 신문제작방식이야말로 선정주의의 메카니즘의 실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신문사들간의 치열한 경쟁 불필요한 사고의 전시, 해외토픽란에서의 여체의 사진, 백발로만의 컷 제목, 필요 이상의 굵은 고딕체 제목, 여자 선수들을 클로즈업 시킨 사진, 과대집중기획 현상 등, 이 모든 것이 위에서 열거한 선정적 내용 및 방법과 더불어 우리나라 신문에서의 선정적 현황의 목록이라고 지적된다.

3. 방송에서의 센세이셔널리즘

방송은 시각과 청각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의 경우보다 더 수용자의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속성이 강하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방송은 신문보다 오히려 선정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리고 방송에서의 센세이셔널리즘은 보도 및 오락 프로그램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광고의 경우도 선정성이 매우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방송에서의 센세이셔널리즘을 제도, 기능, 편성, 제작수법 상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것 같다. 제도상으로 방송을 구분할 때 센세이셔널리즘과 가장 밀착된 상해에 있는 방송제도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상업 방송이다. 선정주의는 상업주의와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분석과 논의가 필요 없으며, 상업방송에서는 선정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마치도 당연한 숙명과도 같이 되어버렸다. 또한 상업방송에서는 기능상으로 오락 프로그램에 치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오락적인 내용과 센세이셔널리즘은 또한 동일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오락프로그램에서의

선정주의는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방송에서의 상업주의와 오락성 및 선정주의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국영이나 공영방송에서 센세이셔널리즘이 전무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교양 교육적인 프로그램에서 선정적이 전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일반적 견지에서 볼 때 국·공영 보다는 상업방송, 교양·교육 프로그램보다는 보도, 오락 프로그램이 선정적 프로그램으로서의 면모를 더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방송이 공영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성이 별로 존재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반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상업방송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센세이셔널리즘이 적지 않게 난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텔레비전의 경우 편성상으로 아직도 오락프로그램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프라임 타임의 경우는 VHF의 모든 채널들이 압도적으로 오락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성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오락프로그램에서의 센세이셔널리즘은 드라마, 쇼, 코메디, 영화 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드라마에서의 자극적인 대사와 선정적인 장면, 치정관계, 흥미와 호기심과 흥분을 유발하는 내용 등 선정주의의 목록이 허다하며, 쇼 프로그램에서의 무희들의 관능적인 춤과 가수들의 노출된 의상 및 소란한 노래와 음악, 그리고 자극적 조명 등 선정적 요소들이 많이 발견된다.

오락적인 프로그램에서 뿐만 아니라 보도적인 프로그램에서도 선정성은 적지 않게 노출되고 있다. 뉴스 프로그램의 경우, 신문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흥미와 호기심을 끄는 살인, 강도, 치정관계의 소재가 생기면 카메라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을 촬영하여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수법은 신문보다 오히려 더 센세이셔널리즘을 발휘하고 있다고도 보여진다. 총건 바둑이 허위보도 사건의 경우 개를 한밤중의 뉴스시간에 스튜디오에까지 등장시켜 방영하고, 범죄사건의 경우 진범도 아닌 혐의자를 마치 죄인 다루듯 마이크와 카메라를 필사적으로 갖다 내미는 장면이라든가, 또는 조세형이 잡혔을 때 수술실까지 침입하여 촬영하는 등 텔레비전 뉴스의 여러 측면에서 선정성을 엿보게 된다. 텔레비전 뉴스는 제한된 시간에 재미있고 박력 있게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카메라 취재가 뉴스 장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문보다 오히려 선정적이 더욱 가중되기 쉽다. 그리고 뉴스를 전달하는 뉴스캐스터나 아나운서와 기자들의 뉴스 전달방법 및 화술 등에 따라서도 센세이셔널리즘이 따르게 마련이다.

한편 요즘에 시청자들의 인기를 끌고있는 사회고발의 보도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제목 자체가 호기심을 끌고 선정적일 뿐 아니라 뉴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직접적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본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촬영 방법이 불가피하지만 너무 자주 나온다면, 또는 찍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촬영한다면 하는 방법도 선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화면처리나 사운드에 의한 선정성도 때로는 엇볼 수가 있으며, 또한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가두에서 돌연히 카메라를 갖다 대고 질문을 하면 엉뚱한 대답이 나오도록 유발하는 것도 일종의 센세이셔널리즘의 수법이며, 공적인 사건이 아닐 때 본인의 승낙 없이 촬영을 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한다든가, 명예훼손, 초상권의 침해를 범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광고에서의 크고 높은 메시지의 억양 및 과장된 내용과 번잡한 화상, 그리고 프로그램에도 때에도 마찬가지로의 수법 등의 이 모든 수법들이 방송에서의 센세이셔널리즘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센세이셔널리즘에 관한 개념, 과정기능 및 현대적 상황을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선정주의가 발생과정에서 저널리즘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도 크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는 상업성과 오락적 기능에 너무 치중되어 미디어의 수용자들을 때로는 감성적으로 저속화시키고 현실을 외면 내지 도피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보다는 바람직하지 못한 쪽의 기능을 더 수행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사회체제에서 매스 미디어에 의한 선정주의가 아주 없어질 수는 없는 일이며, 한편으로는 복잡다단한 현대생활에서 일시적이거나 긴장과 피로를 덜어주는 위안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선정주의의 존재가치를 아주 부인할 수 만도 없다고 여겨진다. 어쨌든 간에 센세이셔널리즘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역기능적 확대를 걱정하기 보다는 그 기능을 견제하고 상살하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엘리트 저널리즘」의 육성과 정착이 우리나라에서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언하고 싶은 것은 지면 관계상 주간지와 그 밖의 잡지를 이번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다.

<참 고 문 헌>

- Emery, Edwin and Michael Emery, The Press and America—An Interpretative History of the Mass Media.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1978.
- Hynds, Ernest C., American Newspapers in the 1980s. New York: Hastings House, 1980.
- MacDougall, Curtis D., Newsroom Problems and Policies. New York: Dover,1963.
- Merrill, John C. and Harold A. Fisher, The World's Great Dailies, New York: Hastings House,1980.
- Mott, Frank Luther, American Journalism—A History 1690–1960. New York: Macm–illan, 1963.
- Swanberg, W. A. Citizen Hearst. New York: Scribners,1961.

– 서울대학교 영문과 졸. 미국 콜롬비아대 신문대학원졸.

– 코리아·헤럴드 외신부장역임.

– 「신문과 정부와의 갈등」.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